세 명의 미군 룸메이트

(눅5:27-32)

27.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 명의 미군 룸메이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제가 미군부대에서, 처음 방을 배치 받았을 때 함께 지내던 미군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서 저와 함께 했던 세 명의 룸메이트들을 기억 속에서 한번 되살려보면서 의인과 죄인의 문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미군들의 생활을 제가 그때 경험한 대로 요약하자면, 미군들을 통해 보여 진 미국문화 속에 젖어있는 미군들의 삶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클럽 생활과 해피스모크였습니다.
클럽이라는 것은, 이제 근무가 끝나고 자유로운 시간이 되었을 때 미군들이 다 부대 바깥으로

나갑니다.
부대 바깥으로 나가면 대로를 중심으로 미군부대가 있고 마을이 있는데, 미군들이 다운타운이라고 부르는 그 곳에 들어가면 그 속에는 수백 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술이 있고 아가씨들이 있는 곳이지요.
그게 미군들의 사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들이 소위 대마초류에 속하는 해피스모크를 피우는 것을.
그런데 미군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90% 이상이 해피스모크를 한다는 겁니다.
해피스모크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마약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예외 없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클럽생활,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을 만나고 데이트 하면서 사는 생활, 그러다 조금 마음에 맞으면 살림을 살지요, 근무하는 1년 기간 동안에.

그것과 해피스모크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번 아이는 '리드'라고 하는데 헬리콥터에서 송수신용 라디오를 고치는 정비사였습니다.
백인이었는데, 생활이 굉장히 단정합니다, 사생활의 중심이 독서였고 그리고는 Craft shop에 가서 만들기에요, 글라이더를 만들거나 겨울에는 눈이 덮였을 때 눈 위에 바람으로 달리는 보트를 만들어서 원격조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내식당에도 가지 않고 방안에서 자기가 다 만들어 먹습니다.
얼마나 근면하고 건실한지 몰라요, 그리고 깍쟁이에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흑인인데 이 사람도 클럽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매달 사진이 한 장씩 오는데, 어떤 사진이냐 하면 미국에 남아있는 약혼녀의 사진입니다.
어떤 때는 비키니를 입고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들고 좋다고 사진에 대고 뽀뽀를 하고 저한테 자랑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클럽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리드는 약혼녀가 없음에도 마찬가지로 절대 클럽을 나가지 않습니다.
아예 부대 밖을 나가지 않고 부대 안에서 그렇게 아주 건실하게 살아갑니다.

스텔라라는 친구는 백인인데 털털하고 성격도 좋습니다.
오픈마인드에요, 오픈마인드.

리드와 윌리엄은 항상 갈등 속에 있어요, 백인과 흑인의 갈등 속에 있는데, 스텔라는 백인인데도 윌리엄과도 잘 지내고 저한테도 잘하고.
물론 리드라는 깍쟁이가 저한테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텔라는 클럽생활도 하고, 해피스모크도 피우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오산비행장에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부대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나는 대마초를 가지고 본국으로 들어가려다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상하죠?

이들이 제게 별명을 붙여서 불렀는데, 이 리드라고 하는 백인은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때는 동료였고 미국말에 존칭이 없다보니 제가 애라고도 했습니다만, 이 리드나 윌리엄은 저를 Professor라고 불렀습니다, 삼수 하다가 군에 간 사람인데.
왜 Professor라고 불렀는가 하면 까만 안경을 쓰고 만날 방안의 소파에 앉아서 성경 불경, 도덕경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렀는데, 이 망나니 같은 스텔라는 저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Reverend라고 불렀어요, Reverend, 목사님에 대한 존칭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늘 말하기를 'Reverend Tae, forgive me! forgive me!' 그랬습니다.
내가 자기에게 무얼 용서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늘 자기가 죄인이니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웃으면서 장난으로 하는 거죠.
둘은 저를 professor라고 부르고, 또 한 사람은 reverend라고 부르고…

이제 생각해봅니다.
리드와 윌리엄은 클럽생활을 안 하고 여자관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볼 때, 과연 리드와 윌리엄이 하나님 앞에서 스텔라보다 우월할까?
스텔라는 사실 망나니로 난잡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리드의 근면하고 건실하고 깨끗한 삶의 모습이 우월해보이지요.
또 약혼녀가 있다고 클럽생활을 하지 않는 윌리엄의 그 모습이 당연히 스텔라보다 우월해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월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리드가 클럽생활을 안 하는 이유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클럽생활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성병 옮을까봐 싫다는 겁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윌리엄은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하지 않아도 압니다, 약혼녀 사진을 보며 늘 마음을 달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클럽생활을 하며 클럽에 있는 여자들과 데이트 하는 스텔라보다 나은 것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나은 것이 없을까요?
리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마음자리에 자기 건강이 들어가 있어서 클럽생활을 안 하며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윌리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마음자리에 약혼녀가 들어가 있으면서 약혼녀와의 관계에서 클럽생활을 안 한다는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자면, 리드나 윌리엄이나 스텔라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월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농담이지만 스텔라는 리드와 윌리엄이 저를 향해 professor라고 부르고 있는 동안에 저를 reverend라고 부르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때는 신학교에는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예 신학교라는 게 관계도 없는 것이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던 저한테 reverend라고 부르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드는 건강이라는 것이 마음에 소중하다고 여겨졌으므로,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취해야 될 행동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앞에서 리드가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이 들어가 있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저를 professor라고 부른 이유는 자기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내가 책을 읽으니까 동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윌리엄은 흑인인데 해피스모크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약혼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았어요.
자기는 책을 안 읽는데 저는 책을 읽으니까 존경의 뜻으로 professor라고 부른 거죠.

스텔라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 마음속에 답이 없어요, 그냥 육체의 소욕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클럽에서 여자를 만나고 해피스모크를 피우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정답이 아니라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월한 자는 없지만, 왜냐하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바에는 우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 더러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 건강을 마음에 담았더라도 마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담으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니까.
마치 밥그릇에다 화분의 꽃을 옮겨 담은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화분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흙더미와 함께 밥그릇에 담으면 밥그릇은 지저분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유리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모셔 들이려고 할 때, 스텔라라고 하는 이 망나니가 제일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과 생각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하는 요청은 누구보다도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합니다.
레위를 부르시고, 이 세리였던 마태가 잔치를 벌이는 데에 참여하셔서 그런 동류의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죄인들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의 기준이 뭐냐 하면 율법조항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분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네가 지금 너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너와 구원은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조항을 다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킨 자들이고,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깨끗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키는데, 그 율법을 지킬 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을 왜 지키고 있는가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왜 지키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오복과 부귀영화,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복이 담겨져 있으면서, 이 오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정답을 찾아낸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오복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문제 삼는 것은 이 마음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행위의 차원은 더럽다고 욕하고 깨끗하다고 자부심을 갖지만, 깨끗하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탐욕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조금만 벌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소심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일탈하다가는 우리 가정이 망가지겠다'

는 염려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염려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관점으로 깨끗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도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될까봐, 리드처럼 건강이 상할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깨끗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다른 이유 때문에 깨끗하게 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윤리적인 공로로 나도 모르게 의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행위가 바리새인처럼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서기관이 주로 바리새인 중에서 나오는데,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윤리적인 행위가 서기관 나아야 하지만, 그렇게 나아야 하는 윤리적인 행위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에 소중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의인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아닌데, 윤리적인 행위를 했다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정답을 맞힌 자,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있고 겉은 회 칠한 것처럼 그 꼴 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내가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썩은 무덤이 윤리적이라는 얘기와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나는 내 스스로는 내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체질적으로.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것들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만져지는 그것들을 마음에 들여놓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말하려 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의인의 기준을 율법적인 행위에서 보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

서는 죄인과 의인의 기준을 마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 하며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마음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답을 모르는 자로 고백하라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되고, 내 마음에 생각이 되고, 내 마음에 의지로 표현이 되어서 행동하기 전까지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면서,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을 읽고 답을 얻어가지고 그대로 해서 사업을 열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기가 깨끗한 줄로 압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마음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나고 싶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중풍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세리 마태의 마음은 나병환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유대사회 속에서 유대사회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도 없는 자이고, 정답을 말할 수도 없는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렇게 기뻤던 거죠.

여러분, 지금 만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많은 돈 아닙니까?
지금 만나고 싶은 게 내 건강 아닙니까?
지금 만나고 싶은 게 합격통지서 아닙니까?
지금 만나고 싶은 게 하나님이기 전까지는 용납이 안 되는 죄인들이라 이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드, 윌리엄, 클럽생활을 안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에 그렇게 깨끗한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더러워진 것이지요.

이것은 조직폭력배가 조지폭력배 단체 안에서 원하는 행동을 해주는 것과 똑같다는 얘깁니다. 조직폭력배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행동했다고 2인자 3인자의 자리로 승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내 건강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내 약혼녀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들어와 있는 것에 맞춰서 행동했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왔다면, 지금 여기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지금 만남이 그리워지고 소원이 되지 않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죄인 됨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가 지금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거울삼아 살펴보게 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배에 창을 받고 내가 죽어야만 되는 존재인가를 묵상하면서 답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인 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처럼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